

<서평>

조재형의 『그리스-로마 종교와 신약성서』 서평

그리스-로마 종교와 신약성서, 조재형 저, 서울: 부크크, 2018

소기천*

1. 서론

헬레니즘과 유대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마틴 행엘의 저작은 신약학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을 아는지 모르는지 약 10여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만화로 나온 토머스 불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¹⁾ 시리즈가 꽤 인기가 많다. 이 책은 불핀치의 원작을 서영이 그림을 그려서 어린 학생들이 흥미롭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접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그 덕분에 요새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이야기들에 매우 친숙하다. 서구 사회에서 그리스로마 신화는 성서의 이야기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종교적/문화적/사상적 토양을 서구인들의 마음 속에 제공해 왔다. 그리스로마 신화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딧세이아』, 그리고 헤시오도스의 작품들을 뼈대로 해서 여러 가지 그리스 문학 작품들의 이야기가 섞여서 형성되었다.²⁾ 그런데 이 그리스-로마의 신들의 이름과 철학자들이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성서신학과 초기 그리스도교 배경사 교수

1) 토머스 불핀치, 『그리스 로마 신화 셋트』, 이광진 역, 서영 그림, 만화를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세트 (서울: 가나출판사, 2005).

2)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그리고 에우리피데스의 작품들은 최근에 천병희에 의해서 그리스 원전에서 새롭게 한글로 번역되었다. 호메로스, 『일리아스』, 천병희 역 (파주: 도서출판 숲, 2015); 『오딧세이아』, 천병희 역 (파주: 도서출판 숲, 2014); 헤시오도스, 『신들의

신약성서에도 등장한다. 사도행전은 ‘제우스’와 ‘헤르메스’, ‘아데미’ 여신의 이름(행 14:12-13, 19:35)과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언급된다(행 17:18).³⁾ 이런 직접적인 언급보다도 간접적인 인용, 인유, 메아리는 셀 수 없이 많다.⁴⁾ 그래서 구약성서와 유대교적 배경에서만 신약성서를 읽게 되면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기독교인들도 신약성서를 읽을 때 종종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왜 예수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했는가? 예수는 어떻게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구약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왜 신약성서 기지들은 영혼이 더 중요하고, 영혼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가?

위의 질문들에 대해서 저자는 그리스-로마의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즉, 신약성서의 어떤 부분들은 구약성서와 유대교 배경이 설명을 해주지만 또 어떤 부분은 그리스-로마의 문화와 종교의 배경에서 더 잘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성서 덕분에 유대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쉽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로마의 문화와 종교가 신약성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을 의식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생소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과서와 같은 안내 역할을

게보』,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12); 에우리피데스,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2』, 천병희 역 (서울: 도서출판 숲, 2009).

- 3) 행 14:12-13- “12 바나비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행 19:35-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행 17:18-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리라.”
- 4) ‘인유’, ‘메아리’는 리처드 헤이스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를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으로 분석할 때 사용한 개념들이다. 인유가 기본적으로 독자가 다른 문학 작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층본문에 대한 의도적인 언급이라면, 메아리는 무의식적인 언급이다. Richard B.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30.

해주고 있다.

2. 이 책의 주요 논점

이 책은 그리스-로마 종교의 주요 사상들이 신약성서 본문들에 어떻게 연관되고 또 영향을 주었는가를 아더 리브조이가 처음으로 제안한 사상의 역사(history of ideas)를 가지고 연구한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로마 종교의 흐름 안에서 형성되고 흘러나온 사상이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신학으로 합쳐졌으며, 또 그리스도교는 그 사상의 물줄기의 흐름과 방향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바꾸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⁵⁾ 즉, 기독교의 기원이 유대교로부터인가 아니면 헬라화된 유대인으로부터인가? 이 책은 그리스도교의 기원이 단지 유대교적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로마 배경에서 헬라화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리스도교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 신론, 기독교론, 인간론, 그리고 영육 이원론과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한 이해, 삼위일체의 배후에는 “그리스-로마 종교라는 강이 쏟아내는 무수한 물줄기가 있었다.” 그 강은 지류가 아니라 “유대교라는 강과 어깨를 마주하는 ‘대하’”라고 저자는 주장한다.⁶⁾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흔히 서양 사상사의 양대 산맥이라고 칭하는 유대교와 헬레니즘에 대하여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는 책이다.

3. 이 책의 구조와 주요 내용

이 책은 서문을 제외하게 크게 III부로 구성되어 있다. I부에서는 ‘그리스-

5) 조재형,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서울: 부크크, 2018), 28.

6) 조재형,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332.

로마 종교와 신약성서의 관계'를 다루는 데, 2015-2017년에 「성서마당」에 연재했던 내용들이 뼈대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신도들도 무난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지만, 새로운 관점을 많이 제공한다.

II부에서는 ‘그리스-로마 종교의 관점에서 신약성서 연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51-59절, 18장 1-19장 42절, 누가복음 9장 28-36절, 사도행전 12장 6-7절, 16장 25-26절, 22장 14절을 해석한다. 이 부분은 저자가 신학 전문 학술지(「신약논단」, 「기독교신학논총」)에 게재했던 논문들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아니면 읽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I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은 독자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내용들이다.

III부는 ‘부록’인데, ‘1세기 팔레스틴에 영향을 주었던 고대 로마법의 역사와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신약성서에 나오는 일부일처 혼인제도의 기원이 로마의 혼인법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부록으로 잡은 이 부분도 사실은 신약성서와 그리스-로마 종교/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II부의 내용으로 넣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먼저 이 책은 그리스-로마 종교는 고대 근동의 종교들과 융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잘 설명한다. 호메로스(또는 호머)의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와 그리고 다른 호메로스의 시들 속에 등장하는 신들과 인간의 이야기는 그리스-로마 종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이 책은 문학적 구조로서 호메로스의 작품들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나타나는 종교적 제의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주제들(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영웅론 등)을 통해서 호메로스가 그리스-로마 종교에 준 영향을 살펴본다. 또한 월터 버커트가 그리스의 종교를 영웅들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로마 종교에는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들과 고귀한 죽음을 한 사람들을 숭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모방하여 신약성서 기자들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영웅들로 묘사하여, 그 당시 그리스-로마 세계의 독자들에게 감동적인 기독교 이야기를 전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 책은 황제 숭배는 로마 종교가 발명한 독특한 제의이지만, 이 또한 영웅 숭배의 범주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로마 군대 내에서 남성들이 주로 참여했던 미트라 제의와는 달리 주로 여성들이 참여했던 디오니소스 제의는 그리스-로마 종교의 신비주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들이 된다는 것이다. 저자의 설명을 통해서, 이 신비주의 종교가 죽음과 부활과 영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켰고, 이것이 동시대의 기독교 신학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그리고 저자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이시스 제의를 통해서 그리스-로마 종교의 포용성과 독특성을 살펴본 후,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종교 전통이 로마시대에는 어떻게 계승되어 발전되었는가를 살펴본다. 무엇보다 그리스의 철학적인 종교에서 플라톤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영향력을 중심으로 그리스-로마 종교가 고대 영지 사상과 2-4세기의 기독교 영지주의에도 연관되어 있음을 논한 것은 저자의 독특한 관점이다. 즉, 2-4세기의 그리스도교의 영지주의 자체도 그리스-로마종교와 연관되어 발전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4. 이 책의 공헌점

이 책의 저자 조재형은 클레어몬트 대학원 대학교에서 그리스-로마 문학(『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과 신약성서의 연관성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한 세계적인 신학자 맥도날드(Dennis R. MacDonald) 교수 아래에서 수학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로마 종교와 신약성서에 대해서 깊이가 있으면서도 풍부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그리스-로마 신화를 다룬 책들은 있지만, 그리스-로마 종교와 신약성서를 다룬 책은 조재형의 것이 유일하다. 아마도 국내에 번역된 책 중에서 앨버트 벨이 지은 『신약 시대의 사회와 문화』가 조재형의 책과 가장 근접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다루는 범위와 내용은 서로 매우 다르다.⁷⁾ 벨은 신약의 유대적 배경을 간략하

게 다루고 그리스-로마 철학과 종교, 사회 구조 등을 다루지만, 이것들을 신약성서와의 관계는 전체 10장 중에서 1장으로 피상적으로 소개한다. 반면에 로날드 내쉬의 번역된 저서 『복음과 헬라문화』는 헬레니즘 철학과 그리스-로마의 신비주의와 영지주의를 종교사학과의 주장을 반대하는 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조재형의 입장과는 다르다.⁸⁾ 서구에서는 종교사학파에서 그리스-로마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신약성서 본문들과 몇몇 그리스-로마의 신들(디오니소스, 아폴로, 신비종교의 신들 등)과 그리스-로마 문학과와의 비교 연구는 논문들을 통해서 많이 연구되었지만, 단행본으로 나온 책들 중에서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라는 제목으로 된 것들은 없다. 조재형은 월터 버커트의 『그리스 종교』의 내용에다 그리스-로마의 신비종교가 죽음과 영혼의 개념 형성에 준 영향을 찾아내어서 그리스도의 기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준다.⁹⁾ 그래서 조재형의 저서는 구약성서와 유대교적 관점에서 신약성서를 해석하는 대부분의 연구서의 내용과 관점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약성서에 대한 매우 창의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이 책은 국내에서는 드물게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에우리피데우스의 『박카이』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뒷세이아』와 본문들을 신약성서 본문을 미메시스 비평법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새로운 신약성서 해석 방법론을 제시해서 방법론의 다양성과 창의적인 시도를 하였다. 신약성서 본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추구하는 학자들에게 사상사비평법, 상호텍스트성, 미메시스 비평법의 사용법을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 책은 제공한다.

7) 엘버트 벨, 『신약 시대의 사회와 문화』, 오광만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8) 로날드 H. 내쉬, 『복음과 헬라문화』, 김상엽, 이경직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9) Walter Burkert, *Greek Relig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5. 이 책을 위한 제언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가장 힘들어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약성서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구약에서의 직접인용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로마 종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신약성서에서 시편과 이사야서의 본문들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자체도 여러 번 나타난다. 사도행전에서 몇 번 제우스와 헤르메스, 아데미의 이름이 나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약성서의 본문들은 직접적으로 많이 신약성서에 인용된다. 아무리 헬라화 된 유대인들이 주로 칠십인역을 사용해서 구약성서를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구약성서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조재형의 책은 주로 특정한 본문들에 나타난 그리스-로마 종교와 문학의 영향력을 다루었기 때문에 신약성서의 구약성서 사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차후에 이뤄진다면 이 책의 내용이 더욱 돋보일 것이다. 또한 리차드 헤이스가 상호텍스트성을 이용해서 바울 서신들 안에 메아리와 인유로 남아있는 구약성서의 영향력을 밝혔듯이, 신약 성서에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구약성서의 영향력이 그리스-로마종교와 문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 책은 지금까지 신약성서 연구가 지나치게 유대교적 배경에서 진행되어 온 것과 비교하면 그리스-로마 배경에서 했기 때문에 매우 참신하다. 저자가 다룬 신약성서 본문이 주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집중되어 있지만, 기원전 333년 이래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뤄진 헬레니즘의 영향력이 거의 3백년 이상 지속된 가운데서 신약성서가 기록되었다는 직설적인 현실로 우리들을 안내하는 의미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얼핏 보면 그리스도교의 정체

성에 혼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문화와 다종교 사회 속에서 신약성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신약성서에 대한 창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운 사상은 외부로부터 온다”라는 어느 현자의 말처럼, 어쩌면 그리스도교의 갱신은 성서해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은 한국 신약 학계와 한국교회에게 도전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구약성서의 영향력을 비교해 볼 때, 신약의 다른 본문에 있어서 그리스-로마 종교/문학의 제한된 영향력에 대해서도 차후에 연구가 이뤄진다면 신약성서에 대한 유대교적 배경과 더불어 해석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헬라화 된 유대인들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또 하나의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저자의 논지는 향후 그리스-로마의 종교와 사상의 배경에서 신약성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책은 지침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주요어>

그리스-로마종교, 신약성서, 사상사비평법, 미메시스 비평법, 헬라적 유대교

<Key Words>

Greco-Roman Religion, New Testament, History of Ideas, Mimesis Criticism, Hellenistic Judaism

참고문헌

- Burkert, Walter, *Greek Relig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 Hays, Richard B.,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내쉬, 로날드 H., 『복음과 헬라문화』, 김상엽, 이경직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 벨, 앨버트, 『신약 시대의 사회와 문화』, 오광만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6.
- 불핀치, 토머스, 『그리스 로마 신화 셋트』, 이광진 역, 서영 그림, 만화를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세트, 서울: 가나출판사, 2005.
- 에우리피데스, 『에우리피데스 비극 전집2』, 천병희 역, 서울: 도서출판 숲, 2009.
- 조재형, 『그리스-로마종교와 신약성서-그리스도교의 기원에 대한 사상사』, 서울: 부크크, 2018.
- 헤시오도스, 『신들의 계보』, 천병희 역, 고양: 도서출판 숲, 2012.
- 호메로스, 『오뒷세이아』, 천병희 역, 파주: 도서출판 숲, 2014.
- , 『일리아스』, 천병희 역, 파주: 도서출판 숲, 2015.

<초록>

조재형의 『그리스-로마 종교와 신약성서』 서평

소기천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10여 년부터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신약성서와 연관시켜서 연구한 이 책은 그리스-로마 종교의 주요 사상들이 신약성서 본문들에 어떻게 연관되고 또 영향을 주었는가를 아더 러브조이가 처음으로 제안한 사상의 역사(history of ideas)를 가지고 연구한다. 저자는 그리스-로마 종교의 흐름 안에서 형성되고 흘러나온 사상이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신학으로 합쳐졌으며, 또 그리스도교는 그 사상의 물줄기의 흐름과 방향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바꾸었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기원이 단지 유대교적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로마 배경에서 헬라화 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I부에서 ‘그리스-로마 종교와 신약성서의 관계’를 다루고, II부에서는 ‘그리스-로마 종교의 관점에서 신약성서 연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51-59절, 18장 1-19장 42절, 누가복음 9장 28-36절, 사도행전 12장 6-7절, 16장 25-26절, 22장 14절을 해석한다. 이 책의 최대 장점은 구약성서와 유대교적 관점에서 신약성서를 해석하는 대부분의 연구서의 내용과 관점과는 다르기 때문에 신약성서에 대한 매우 창의적인 해석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론도 매우 새롭다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신약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약본문들을 어떻게 그리스-로마종교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